

“공안 눈총 따갑지만 법회 즐거워”

도영스님 中서 법당 운영 한인불자들과 간담회 11일 광제사에서 연합수계법회... 애로사항 점검

2004년 6월 26일 중국 베이징(北京) 만월사.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이 참석 한 가운데 법당 개원법회가 열리고 있었다. 그런데 법회가 시작되자마자 중국 공안 8명이 구두발을 신은 채 법당에 들어와 법회를 방해했다. ‘주거지역 내 종교 활동은 불법’이라는 이유였다. 일명 ‘구두발 사건’이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이 6월 9일 중국 베이징 광제사에서 중국불교협회 장린 부부서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 사건 후 2년여 지난 6월 9일. 도영 스님이 다시 베이징을 방문했다. 12일까지 3박 4일간 일정으로 재중국 한인불자 연합수계법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방문 기간 도영 스님은 2년 전과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하고 있지만 마저도 올해 말까지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한다. 지난 3월 이를 규제하는 법령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제법회에서 류주열 주중 한국대사관 총영사도 “중국 당국과 중국 불교계 스님들과 의논해 우리 사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11일 만월사에서 베이징, 광저우(廣州), 난징(南京),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등 중국 내 법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불자들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인 불자들은 “시시때때로 공안들의 감시를 받고 있으며, 언제 폐쇄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상하이 반야성사도 최근 아파트 아래층 주민의 신고로 법당이 폐쇄될 위기를 맞았다. 광저우 불광선원, 난징 관음사, 위하이(威海) 호림정사도 처지는 마찬가지다.

간담회에서는 법당 마련과 함께 ‘지도법사 부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부분의 법당은 재가불자들만의 약식법회로 진행되거나, 유학생 스님들이 간헐적으로 법회를 진행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 및 신도관리는 업무도 못 내고 종교국이나 외사처와의 관계형성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중국은 외국인들의 종교 활동 규제를 엄격하게 한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는 합법적인 장소(상가나 오피스텔)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주거지역 내에서의 종교 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간담회에서 도영 스님은 “이번 수계법회나 간담회를 계기로 종단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불자들을 위로했다. 또 “중국불교협회와도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톈진 능인선원 분원 불광사 지도법사 덕은 스님은 “종단 승가고시 제도에 해외 지원과 관련한 방안을 마련, 해외 지도법사에 지원한 스님들에게 자격을 주거나 승려교육과정의 일부로 편입한다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만월사 지도법사 진명 스님 인터뷰 14면

그런데 한인불자들이 운영하는 법당들은 재정이 열악해 대부분 주거지역에 위치한다. 만월사도 아파트에 위치한다. 현재 공안국 외사처의 묵인 하에 법회활동을

11일 광제사에서 열린 연합수

계법회서 류주열 주중 한국대사관 총영사도 “중국 당국과 중국 불교계 스님들과 의논해 우리 사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주 만나 통일이루자” 다짐

6·15 민족통일축전서 남북불교지도자 만나



6월 15일 무등파크호텔에서 열린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남북종교인 상봉모임’에서 리현숙 조선불교도연맹 전국신도회 부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고 있다.

빛고을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6·15 민족통일 대축전에서 남과 북의 불교지도자들이 만나 불교교류와 평화통일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북측 불교대표로 정서정 서기장과 리현숙 조선불교도연맹 전국신도회 부회장이 참가했다. 남측에서는 지원(조계종 사회부장), 무원(천태종 사회부장), 법타(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명진(《민족21》 발행인) 스님과 진각종 포교부장 회성 정사 등 종단 관계자, 광민(광주 종교인평화회의 공동대표), 행법(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 공동대표) 스님, 이호준(광주 시청총장), 윤해월(여성불자회 광주지부) 회장 등 광주지역 불교인이

북측 조선불교도연맹 정서정 서기장은 6월 15일 무등파크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종교인 상봉모임’에서 “민족열사의 고장 광주에서 불교지도자들을 만나 반갑다”고 인사하고 북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 불교교류 현황을 소개했다. 조계종 사회부장 지원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남북의 불교인들이 자주 만나 통일시대를 이끌어 내자”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북측 불교대표로 정서정 서기장과 리현숙 조선불교도연맹 전국신도회 부회장이 참가했다. 남측에서는 지원(조계종 사회부장), 무원(천태종 사회부장), 법타(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명진(《민족21》 발행인) 스님과 진각종 포교부장 회성 정사 등 종단 관계자, 광민(광주 종교인평화회의 공동대표), 행법(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 공동대표) 스님, 이호준(광주 시청총장), 윤해월(여성불자회 광주지부) 회장 등 광주지역 불교인이

참석했다. 종교인 상봉모임에 앞서 14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6·15공동선언실천 남북위원회 명예대표)은 축사를 통해 “민족의 분

단은 우주만물의 본질이며, 천지만유의 고통이다”며 “서로 맞잡은 손으로 뜻도 마음도 함께 나누며 통일의 꿈을 실현해 공동의 행복을 성취하자”고 말했다.

광주=이준엽 기자

“조물런, 사회복지사업에 적극”

interview 조선불교도연맹 정서정 서기장

“일제때 광주학생의거가 일어났고 5·18 민주열사가 묻힌 광주에서 불교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랜 전통이 있어 대부분 불교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불교인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6·15 민족통일축전 북측 불교대표로 광주를 방문한 정서정 조선불교도연맹 서기장(사진)은 “광주불자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통일사업을 적극 벌여나가자”며 “북으로 돌아간다면 북녘 분들에게 광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겠다”고 첫 광주 방문 소감을 밝혔다.

남북불교교류에 대해 정 서기장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와 협력 사업을 시작으로 신계사, 영통사 복원 등 다양한 사업을 벌여나가고 있으며 남측 불교계와 함께 불교 전문교육시설을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정 서기장은 “조물런은 최근 유공선 위원장 취임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신도조직을 정비해 사회복지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정 서기장은 “스님들이 거주하고, 불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불교건물을 짓고 있으며 현재 11층까지 올라갔다”고 말했다.

북측의 불교현황에 대해 “현재 북에는 60여개 사찰이 있으며 회비를 내고 정식 불교활동을 하는 불자가 4000여명이다”며 “그러나 불교는

광주=이준엽 기자

제21회 불이상에 지홍스님·석길암씨

복지활동·원호연구 인정...7월 5일 시상식



제21회 불이상 수상자로 실천분야에 지홍 스님(서울 아산병원 불교법도 지도법사·사진위), 연구분야에 석길암씨(동국대 강사)가 각각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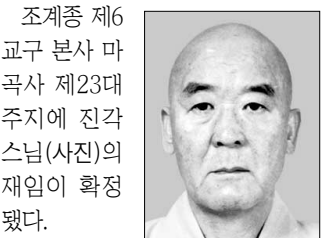
불이상 심사 위원회는 “지홍 스님은 활발한 불교 포교활동과 사회복지분야의 공로로, 석길암씨는 젊은 소장 학자로서 원호사상에 폭넓은 학문적 연구를 통해 불교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1974년 창립된 불이회(회장 홍

희)는 한국불교계 활성화와 여성불교 위상 정립을 위해 설립됐다. 불이회는 1985년 불이상 제정 이후 매년 연구·실천 분야에 걸쳐 불교계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에게 상을 수여해왔다.

시상식은 7월 5일 오후2시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다. 노병철 기자

마곡사 주지에 진각 스님... 불국사 산중총회 무산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제23대 주지에 진각 스님(사진)의 재임이 확정됐다. 마곡사는 6월 10일 선거인단 총 133명 가운데 121명이 참석한 산중총회에서 새 주지후보로 현 주지 진각 스님을 선

출했다. 이날 산중총회에는 진각·대진·장곡 스님 등 3명이 주지후보로 나섰다.

일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진각 스님은 지정 스님과 월하 스님으로부터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대전 고산사 주지와 마곡사 총무국장을 역임했다.

한편, 6월 16일 치러진 불국사 산중총회는 성원미달로 무산됐다. 조용수 기자

말 이후여서 종헌종법 개정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던 7월 임시총회 개최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설문조사는 △직선제 △선거인단 확대 △선거인단 축소 △추대 △현행에 보완 등 5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내용으로 22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전국 분·말사주지연수를 시작으로 교구 분·말사 주지, 종회의원, 강원·울진 스님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용수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노대행 발행·편집인 박혜월 편집국장·위영란 인쇄인·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hopia.com
광고국 (02)2004-8213-6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예시어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牧牛堂 性悟大禪師 永訣式 奉行에 대한 人事말씀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스님의 영결식을 먼 길을 마다않고 어려운 걸음을 해 주신 조계종 원로 스님, 사숙스님, 종단과 각 본사의 소임자 스님, 본사 문도스님, 범어사 소임자 스님, 제방의 선원스님, 범어사·쌍계사 강원스님, 부산의 각 신행단체장 및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계, 관계, 법조계 및 각계의 인사님 등 사부대중 여러분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결법회가 여법히 치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운수사 신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우리 문도 일동은 화합하고,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인사말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우당 성오대선사 추모재 일정

목우당 성오대선사 추모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합니다.

	일시	장소
초재	6월 14일 (음 5월 19일)오전 10시	운수사
2재	6월 21일 (음 5월 26일)오전 10시	운수사
3재	6월 28일 (음 6월 3일)오전 10시	운수사
4재	7월 5일 (음 6월 10일)오전 10시	운수사
5재	7월 12일 (음 6월 17일)오전 10시	운수사
6재	7월 19일 (음 6월 24일)오전 10시	운수사
7재	7월 26일 (음 7월 2일)오전 10시	범어사

※문의처 : 운수사 (051)317-5671

金井山人 牧牛堂 性悟大禪師 門徒 一同